



Original Article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Yoon, Ji-Won¹ · Hwang, Rah Il² · Cho, Hun Ha¹

¹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²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윤지원¹ · 황라일² · 조헌하¹

수원여자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²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entrapment,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an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for parenting stress.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design, a sample of study was consisted of 175 women who were employed or non-employed with preschool children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χ^2 -test, t-test, Pearson's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Results:** Results shows that the level of parenting stress of non-employed mothers was significant higher than that of employed mother. The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entrapment in both of them. Entrapment was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parenting stress in both of them and level of maternal education and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was significant predictors explaining parenting stress of non-employed mothers. **Conclusion:** Entrapment

was very important factors to management parenting stress of bo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Especially,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very important factor to manag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Key Words : Employment, Parenting, Str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가족생활주기 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점차 성역할에 있어 유동성과 가변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공유나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Lee & Kim, 2003; Park, 2001).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어 : 취업, 양육, 스트레스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Ji-Won,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College, San 1-6 Omokchun-dong, Kwonsun-gu, Suwon 441-748, Korea. Tel: 82-31-290-8105, Fax: 82-31-292-6250, E-mail: dumom@swc.ac.kr

투고일 : 2008년 12월 1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4월 10일 2차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0일

경우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간에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게 직장가정에서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여러 가지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Lee & Kim, 2003).

특히 6세 미만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경우 가사 부담은 물론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아동 양육과 돌봄 역할을 대신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서구의 영향으로 증가된 핵가족이라는 가족형태 변화로 가족의 지원체계가 축소되어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Heo, 2006). 이에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아동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발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취업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Kim, Nam, & Cheong, 2006).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역할 부담은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Spurlock, 1995) 이중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관심사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건강과 발달 및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보고되고 있다(Scar, Phillips, & McCartney, 1989). 이처럼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할 뿐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Crnic & Booth, 1991).

양육과정에서 취업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며(Abidin, 1992; Shin, 1997) 그 결과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우울 성향을 유발할 뿐 아니라(Ahn, 2000) 우울의 내재된 정서인 속박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ner & Goldstein, 2001). 실제로 Wilner와 Goldstein(2001)은 장애 아동 어머니의 속박감은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해결되지 않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모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아동

의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 결혼만족도나 사회적 지지를 들고 있으며(Kim et al., 2005),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이중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며(Park, 2004),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호의적이거나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여성의 역할부담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Heo, & Hong, 1997). 이처럼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기와 중년기를 포함하고 있는 취업모의 문제는 직업과 결혼생활,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Hattat-Pollar, Meleis, & Nagib, 2003) 이외에 한국적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부담에 따른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지나 결혼만족도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취업모 역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7).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 가사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느껴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모든 어머니에게 공통된 문제일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부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이나 배우자의 지지가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거나(Jo & Cho,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스트레스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Kim, 1997).

그간 부모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취업 여성에 국한된 접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모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취업모 역시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여 취업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일반적 특성(어머니, 아동, 가족 특성)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한다.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를 비교한다.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 7~8월까지 경기도 소재 3개 어린이집과 서울 소재 1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6세 이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긴장상태인 양육스트레스는 Kim과 Kang (1997)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의 12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

bach's α 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은 .82,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은 .7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84, .89였다.

2) 속박감

Glibert와 Allan (1998)이 개발한 속박척도를 Park 등 (200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탈출동기가 유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외적 속박감 10문항과 내적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 탈출동기가 유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속박감 6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 (2006)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이었다.

3)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인 배우자 지지는 Hyun과 Cho (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측정도구 중 배우자 지지 영역의 11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5였다.

4)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Kwon과 Chae (1999)가 Snyder (cited in Kwon & Chae, 1999)의 결혼만족도 검사도구 (MSI-R)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도구 (K-MSI) 2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다.

Seidenberger와 McClelland의 연구가 Coltheart 등의 연구에서 인용되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4. 자료수집

서울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네 곳에서 기관장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 선택된 어린이집의 만 6세 이하 학령 전 아동의 가정에 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부모가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아동을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가정에 보낼 때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300부 중 213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속박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속박,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어머니, 아동 및 가족관련 특성에 대한 서술 통계와 차이 검정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5세였으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31~35세가 가장 많았고(58.1%, 49.4%)(범위 26~49세) 학력 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50.9%)이 대졸 이상이었다. 취업모의 직업 유형은 전문직이 46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17명(19.8%)이었으며 기타 10명(11.6%), 판매직 7명(8.1%), 서비스직 3명(3.5%) 및 단순직 3명(3.5%)의 순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82.9%)이 모유수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유수유기간은 취업모의 경우 3개월 이하가 35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7개월 이상이 36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자녀는 남아 78명(44.6%), 여아 97명(55.4%)이었고 평균 월령은 55.8개월이었으며 출생순위는 두 군 모두 첫째(60.6%)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어머니 및 자녀관련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관련 특성으로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취업모의 경우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5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4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6명(40.5%)로 가장 많아 두 군 간에 월평균 가계수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7.86$, $p=.00$).

2.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비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총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120점 만점에 각각 64.78점, 74.03점으로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2$, $p=.00$).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 33.48점, 비취업모 38.55점($t=-3.76$, $p=.00$),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취업모 31.30점, 비취업모 35.48점($t=-3.43$, $p=.00$)으로 양육스트레스 및 두 하위 영역 모두에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만족도의 경우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1$, $p=.04$).

그 외 비취업모의 속박감과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속박감 정도가 높을수록($r=.47$, $p=.00$),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r=-.30$, $p=.00$)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정도는 속박감 정도가 높을수록($r=.61$, $p=.00$),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r=-.38$, $p=.00$) 및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r=-.42$, $p=.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속박감이 높을수록($r=.50$, $p=.00$),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r=-.25$, $p=.03$)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정도 역시 속박감이 높을수록($r=.76$, $p=.00$),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r=-.25$, $p=.02$) 및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r=-.41$, $p=.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children, and family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loyed mother (n=86)	Non-employed mother (n=89)	χ^2	p
		n (%)	n (%)		
Mothers					
Age (year)	26~30	11 (12.8)	8 (9.0)	3.13	.21
	31~35	50 (58.1)	44 (49.4)		
	≥36	25 (29.1)	37 (41.6)		
Education	≤High school	19 (22.1)	27 (30.3)	6.58	.16
	Junior College	18 (20.9)	22 (24.7)		
	University	37 (43.0)	36 (40.5)		
	Graduate school	12 (14.0)	4 (4.5)		
Occupation	Laborer	3 (3.5)	75 (84.3)	0.25	.61
	Sales	7 (8.1)			
	Company employee	17 (19.8)			
	Services	3 (3.5)			
	Professional	46 (53.5)			
	Others	10 (11.6)			
Breast feeding	Yes	70 (81.4)	75 (84.3)	0.25	.61
	No	16 (18.6)	14 (15.7)		
Duration of breast feeding (month)	1~3	35 (40.7)	25 (28.1)	5.17	.16
	4~6	13 (15.1)	14 (15.7)		
	≥7	22 (25.6)	36 (40.4)		
Children					
Sex	Male	38 (44.2)	40 (44.9)	0.01	.92
	Female	48 (55.8)	49 (55.1)		
Age (month)	24~35	12 (14.0)	7 (7.9)	2.34	.67
	36~47	18 (20.9)	17 (19.1)		
	48~59	17 (18.9)	17 (19.1)		
	60~71	28 (32.6)	36 (40.4)		
	71~83	11 (12.8)	12 (13.5)		
Birth orders	First	51 (59.3)	55 (61.8)	0.55	.76
	Second	29 (33.7)	26 (29.2)		
	Third	6 (7.0)	8 (9.0)		
Family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100	0 (0.0)	1 (1.1)	17.86	.00
	<200	11 (12.8)	8 (9.0)		
	<300	14 (16.3)	30 (33.7)		
	<400	26 (30.2)	36 (40.5)		
	≥400	35 (40.7)	14 (15.7)		

Table 2. Comparison of parenting stress, entrapment,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N=175)

Variables	Employed mother	Non-employed mother	t	p
	M±SD	M±SD		
Parenting stress	64.78±14.22	74.03±16.11	-4.02	.00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33.48±7.43	38.55±10.16	-3.76	.00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31.30±7.93	35.48±8.17	-3.43	.00
Entrapment	35.58±13.35	37.38±13.29	-0.89	.37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27.09±6.68	28.65±6.01	-1.63	.11
Marital satisfaction	37.97±6.41	39.32±4.34	2.11	.04

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요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이 큰 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으로 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의 경우 속박감($\beta=.53, p=.00$)이,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18, p=.03$), 속박감($\beta=.64, p=.00$) 및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23, p=.03$)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6%와 55%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에 영향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는 속박감($\beta=.46, p=.00$)이,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22, p=.03$), 속박감($\beta=.44, p=.00$) 및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22, p=.03$)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6%와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는 속박감($\beta=.53, p=.00$)이, 비취업모의 경우 속박감($\beta=.72, p=.00$)과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

도($\beta=-.19, p=.01$)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각각 39%와 62%의 설명력을 보였다.

논 의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이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이로 인해 모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건강과 발달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car et al., 1989). 또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종합 고찰한 Harvey (1999)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미취학 연령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취업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Table 3. Correlations to parenting stress and other variables of employed mothers and non-employed mothers (N=175)

Variables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Employed mother	Non-employed mother	Employed mother	Non-employed mother
	r (p)	r (p)	r (p)	r (p)
Maternal age	-.03 (.80)	-.18 (.09)	.04 (.69)	-.01 (.94)
Entrapment	.47 (.00)	.50 (.00)	.61 (.00)	.76 (.00)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17 (.11)	-.18 (.09)	-.38 (.00)	-.25 (.02)
Marital satisfaction	-.30 (.00)	-.25 (.03)	-.42 (.00)	-.41 (.00)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and non-employed mother (N=175)

Variables	Employed mother (n=86)			Non-employed mother (n=89)		
	Total	TSDP	PPPRD	Total	TSDP	PPPRD
	β	β	β	β	β	β
Baby's age	-.08	-.15	-.01	.00	-.07	.09
Maternal age	.05	.03	.06	-.05	-.11	.04
Maternal education	-.15	-.18	-.09	.18	.22	.08
Entrapment	.53	.46	.53	.64	.44	.72
Satisfaction of paternal support	-.00	.08	-.09	-.23	-.22	-.19
Marital satisfaction	-.02	.01	.03	.00	-.04	.06
R ²	.36	.26	.39	.55	.33	.62
F (p)	7.38 (.00)	4.59 (.00)	8.38 (.00)	16.40 (.00)	6.68 (.00)	22.50 (.00)

Note. Dummy variables: maternal education level (\leq high school=0, \geq junior college=1). TSDP=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PPPRD=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조사한 결과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역할갈등이나 우울뿐 아니라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 (Abidin, 1992; Shin, 1997; Spurlock, 1995)과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최근 여성의 취업상태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및 여성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 (Ahn, 2002; Doh, 2004;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과는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욕초기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에 신체 증상, 피로도,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 (Ahn, 2002)나,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가족 기능, 정신건강 및 부부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Doh, 2004) 및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우울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그간 수행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서로 일치되지 않은 결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취업상태가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속박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으로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Heo, 2006). 즉 자녀를 돌보는 일은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일상생활 중에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축적되는 경우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nic & Greenberg, 1990).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어머니의 속박감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역시 속박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o와 Cho (2004)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나 Heo (2006)가 배우자의 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의 유능성 결여, 제한된 다른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등, 사회적 지원의 결여 그리고 우울을 포함하는 개념 (Heo, 2006)으로써, 자녀중심적인 한국 가족에서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노릇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부담감과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를 통해 양육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긍정적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동기화되어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는 속박감 (Brown, Bifulco, & Harris, 1987)은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활동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경험하나 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서적 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취업모의 경우 승진에서의 불평등, 가사일,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감, 주부의 활동이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Kim, 2007)를 통해 살펴볼 때, 취업상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부모의 심리 상태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Crnic & Booth, 1991),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Shin,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속박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속박감만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설명변수인데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나 두 군 간

에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 (Jo & Cho, 2004)나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및 경제적 자립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Son & You, 2008)에 비추어 볼 때,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취업 상태인 경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주부로서의 활동에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실현 욕구와도 상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취업모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Jo & Cho, 2004)와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어머니의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특히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모가 육아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접근은 어머니의 건강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취업모에 관심을 둔 연구와 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해줄 때 여성의 자존감이 증진되고 속박감이 완화될 것이며 가사활동에 배우자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이 배우자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지원에 만족할 때 양육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되며 궁극적으로 여성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속박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설명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취

학 자녀를 둔 어머니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속박감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속박감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취학아동을 둔 어머니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무작위 표본추출과 더 큰 표본크기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감안하여 여성의 취업상태별로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 Clin Child Adolesc Psychol*, 21(4), 401-412.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Ahn, S. (2002).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infants prematurity on postpartum heal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9, 55-68.
-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 (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 *Br J Psychiatry*, 150, 30-42.
- Crne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 61, 1628-1637.
- Crne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childhood. *J Marriage Fam*, 61, 295-305.

- Doh, B. N. (2004). Family functioning, mental health and dyadic adjustment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3, 392-400.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 (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 Med*, 28(3), 585-598.
- Harvey, E. (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 psychol*, 35, 445-459.
- Hashmi, H. A., Khurshid, L., & Hassan, I. (2007). Marit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 working women. *Internet J Med Update*, 2(1), 1-11.
- Hattar-Pollara, M., Meleis, A. I., & Nagib, H. (2003). Multiple role stress and patterns of coping of Egyptian women in clerical jobs. *J Transcult Nurs*, 14(2), 125-133.
- Heo, S. G. (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Hyun, O. K., & Cho, B. H. (1994). Development of the parent-satisfaction scale. *J Korean Home Econ Assoc*, 32(1), 103-117.
- Jo, G. S., & Cho, J. R. (2004).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Gender role attitude, life event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s a moderator. *Korean J Woman Psychol*, 9(3), 27-41.
- Kim, H. S., Oh, K. S., Shin, Y. H., Kim, T. I., Yoo, H. N., Sim, M. K., & Chung, K. H. (2005).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 290-300.
- Kim, H. W. (1997).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relation to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gender-role attitudes, and role qualities. *Korean J Soc Pers Psychol*, 11, 111-127.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 Korean Home Econ Assoc*, 35(5), 141-150.
- Kim, M.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 Health Psychol*, 12(4), 761-777.
- Kim, S. A., Nam, K. A., & Cheong, H. I. (2006). Depression in married employ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5(2), 179-186.
- Kwon, J. H., & Chae, K. M. (1999).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orean J Clin Psychol*, 18(1), 123-139.
- Lee, K. O., & Kim, Y. H. (2003). Sexu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J Korean Home Econ Assoc*, 41(7), 39-58.
- Moon, S. J., Heo, G. O., & Hong, Y. J. (1997). The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couples and the sense of fairness on marital satisfaction. *J Korean Home Econ Assoc*, 32(2), 345-358.
- Park, E. (2001).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7(1), 80-92.
- Park, S.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Park, Y. J., Ryu, H. S., Hahn, G. S., Kwon, J. H., Kim, H. G., Cho, Y. J., Yoom, J. W., Lee, S. J., & Lim, Y. J. (2006). *A survey of anger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hool-based anger management progra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car, S., Phillips, D., & McCartney, K. (1989).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Am Psychol*, 44(11), 1402-1409.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on, Y. J., & You, M. S. (2008). The related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working married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2(2), 143-154.
- Spurlock, J. (1995). Multiple roles of women and role strains. *Health Care Women Int*, 16, 501-508.
- Willner, P., & Goldstein, R. C. (2001). Mediation of depression by perceptions of defeat and entrapment in high-stress mother. *Br J Med Psychol*, 74, 473-485.